



◇ 제2회 불미협전에 출품한 전중무씨 「道倫路」.

불미협 전시회 열린다

회원 50명 신작발표...5일 공평아트센터

한국불교미술인협회(회장 전영화)의 제2회 전시회가 5일부터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다. 80명의 회원중 50명이 참가한 이번 전시에는 강영원, 박찬갑, 손연철, 황남채씨등의 회화, 조각, 조형, 판화작품들이 걸린다. 작년 5월에 가진 창립전 이후의 신작들이 대부분 소개되는 이번 전시는 11일까지 계속된다.



◇ 1311년 제작된 「금강경」아 비라밀경의 일부.

‘금강경’ ‘80 화엄변상도’ 불자·일반인에 호평

’95 서울 판화 미술제

판화미술진흥회가 주최한 95서울판화미술제가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렸다. 이 전시기간중 특별히 관람객의 눈길을 주목시킨 곳은 고·근대판화 특별전이었다. 이 특별전시장에는 2년전 해인사에서 인쇄한 ‘80 화엄변상도’ 전판이 소개됐다. 또 고려말의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과 조선조대의 ‘석씨원류’ ‘도법연화경’ 등이 목판본과 함께 전시됐다. 특히 이 전시에서 눈길을 끈 작품은 1311년에 인쇄된 ‘금강경아비라밀경’이다. 이 작품은 일반에 처음 공개된 것으로 종이 길이가 무려 5미터 34cm나 된다. 7.3cm의 좁은 폭에 정교하게 새겨진 금강경과 변상도 부처들이 생생히 살아 숨쉬는 듯해 관람객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각가 김상구씨가 재연한 ‘80 화엄변상도’ 중 한 판본을 현장에서 직접 인쇄해 판매하기도 했다.

국토순례 비디오 출시

역사탐방연구회, 7편제작
역사탐방연구회가 국토문화순례 비디오테이프 총 12편중 7편을 제작, 보급에 나섰다. 현지의 화려한 자연의 설명이 곁들여진 이 시리즈는 현재까지 해남진도전 오대산, 삼척, 태백산맥 7편까지가 나왔으며 정음, 예산, 경주, 강진, 영주, 김해지역 역사문화유적 순례가 이어질 예정이다. 역사탐방연구회 회장 이세용씨가 해설한 이 시리즈는 가아프로덕션이

촬영과 편집을 맡았다. 국민학생에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볼수 있는 이 시리즈의 각편가격은 1만9천8백 원 (문의:725-1284)

창단1주 음악회

수덕사 우담바라 합창단
수덕사 우담바라 합창단(단장 박지혜)창단 1주년 기념 음악회가 지난 29일 예산군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박명신 지휘, 이성민 반주의 우담바라합창단 발표에 이어 롬비니합창단, 가

국토순례 비디오 출시

역사탐방연구회, 7편제작

창단1주 음악회

수덕사 우담바라 합창단

화제의 작가 장편 ‘차크라 바르틴’ 펴낸 성낙주 씨

“부처님 가르침 현실구제 큰 힘이죠”

대학때 구상 15년만에 탈고...해직교사시절 작업 왕성

“15년간 붙들고 있던 화두를 놓고 나니 공허하고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절대절명의 답을 깨우치고 화두를 놓은 것이 아니라 두권의 소설로 그간의 작업이 정리됐다는 의미가 오히려 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입멸 8년전부터 시작된다. 대장경이 있다는 카발라국에 마하남왕으로부터 부처님께 선물할 큰 종을 만든다는 주문을 받게된다. 총다는 종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데 그의 아들 나무르사는 자신의 신분이 낮

은 것에 불만을 품게 된다. 나무르사는 우연한 기회에 코살라국의 비유리왕자와 인연을 맺게 되고 비유리가 왕이 되어 카발라국을 정복하는데 선봉장이 된다. 결국 카발라국은 멸망하고 부처님은 앙상한 나무 밑에서 두차례에 걸쳐 비유리왕과 담판을 벌이지만 세번째는 비유리왕이 카발라국을 정복하고 만다.

소설(차크라 바르틴)은 정통성왕이 되기를 꿈꾸는 비유리왕과 신분상승을 위해 그에게 충성하는 나무르사 그리고 진리라는 무기로 정복자와 맞서는 부처님의 갈등구조로 이뤄진다. 즉 이 세상을 제도하는 정통성왕은 권력이나 무력, 정치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긍정하고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으로 이

뤄진다는 것이 이 소설의 핵심.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융화시켜낸 대작이 없어 기분이 나빴던 대학생활에서 시작된 성씨의 작업은 전교조 해직교사로 5년간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계속됐고 복직이 된 후에도 2년간 더 이어져 작품구상 15년만에 이룬것이다. 때문에 성씨의 소설은 작가가 가진 힘의 구조에 대한 세계관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에서 발산되는 정의가 소설 속에 진하게 배어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 헤맸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종장 김철호 선생님이 도움이 매우 컸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종 저를 지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임연태 기자)

홍주스님 유작소설 ‘하산’

28년만에 햇빛

불지사, 4월중순 출간

문학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다 불의의 사고로 입적한 한 스님의 유망한 유작이 28년만에 햇빛을 보게 됐다.

4월중에 출간될 홍주(洪州) 스님의 장편(하산(下山))은 불교문학사에서 거의 잊혀졌던 소설. 67년에 간행된 이 소설은 당시 저자 홍주스님이 2백부 한정판으로 펴냈으며 이후 출판이 중단됐다. 1937년생의 스님이 20세에 출가해 10년 만인 67년에 소설(하산)을 발표하고 2년뒤에 비무장지대에 망명을 하던 중 지뢰를 밟아 입적했기 때문. 그러나 이 소설은 문학계에 무명일 수 밖

에 없었던 한 스님의 작품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단 현실과 불교의 사회참여등 첨예한 문제들을 신랄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진보적인 작품으로 주목 받았다.

《하산》을 재출간하는 불지사(대표 김현균)는 이 잊혀진 소설의 복사본을 동국대 도서관에서 발견, 새로 책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동의 화제작 《만다라》보다 10여년 앞서 발표된 이 소설은 현대불교소설의 효시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라는데 단단의 평가다. 소설이 갖는 구조적 완벽성과 유려한 문체는 물론 내용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홍주스님

당시 신문광고에 의하면 소설(하산)을 조지훈씨는 “수행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작자가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신앙과 관음, 교단과 사회와의 모순, 갈등이... 작자가 겪은 수도승 석가의 이행(修行)을 긍정하여 한국불교에 경종을 울린...” 등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 김동리씨도 “젊은 세대가 겪는 한국불교의 고민상이 절절히 묘사되었다”고 했다. 이는 소설(하산)이 당시문학과 불교계에 큰 문제의식을 던져주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자전소설의 형식으로 엮어진 《하산》의 줄거리는 주인공 홍주스님과 석가스님이 불교의 대사회성, 종단과 계율의 문제 부패한 권승들의 권력다툼등에 대해 고민하며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몸부림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석과 자신이 타락한 승려로 오해를 받게 되고 끝내 자살을 하고 만다. 그의 자살에 충격을 받은 홍주스님은 하산을 하게 되는데 그 하산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결단력임을 은유하며 대미를 가름한다.

재출간되는 소설(하산)에 대해 임현영(문학평론가)씨는 “현장감 있는 생생한 묘사력, 산사에서의 유장한 정서, 이루지 못한 전제를 안고 있는 여인들과의 사랑의 삶에 대한 긴 사색의 진주알 같은 대화들이 이 소설의 재미를 배가시킨다”고 평했다. (태)

통일합창단의 찬조출연으로 이어졌다. 또 도신스님과 가수 송승희도 찬조출연해 관객들에게 찬불가요를 선사했다.

제7회 연꽃 노래잔치

불교청년회, 30일 동국대

대한불교 직할 서울불교청년회(회장 성무경)가 4·8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연꽃노래잔치를 오는 30일 오후 1시 동국대 중앙강당에서 개최한다.

어린이들에게 불심을 고취시키고 참작불교도움을 받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펼치는 제7회

연꽃노래잔치는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로, 저학년부(1~3학년) 고학년부(4~5학년)로 나뉘어 독창·중창·합창으로 경연된다. 접수마감은 4월25일 (문의:730-9108)

판소리 불타전 공연

안성도피안사 5월 8일

안성 도피안사가 마련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전야축전 ‘판소리 불타전’이 5월8일 오후 8시부터 4시간동안 도피안사 경내에서 공연된다.

안숙선명성이 들려 주는 ‘판

소리 불타전’은 누구나 참여해 감상할 수 있다. 한편, 도피안사는 반야심경사경을 원하는 불자들에게 사경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문의:0334-676-8700)

이호신씨 ‘다비장 가는 길’ 백련암으로 간다

이호신씨의 그림 ‘다비장 가는 길’이 해인사 백련암에 보관된다.

그간 성철스님의 유품을 모아온 백련암은 성철스님의 다비행렬을 그린 이호신씨의 작

품을 이달말부터 보관기로 했다.

제8회 청소년 예술경연

5월 14일 청교련주최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제8회 청소년 종합예술 경연대회’를 오는 5월14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3일부터 29일까지 참가신청자 접수

를 받는다. 동국대학교 중앙강당에서 펼쳐질 이 행사에서는 국악연주, 사물, 탈춤 등 전통예술

부분으로 나뉘어 경연된다. (문의:735-8165)

불심시심 <17>

허공을 봐도 허공 아니지

靜坐南臺上 (정좌남대상)	조용히 남대 위에 앉아
觀空不是空 (관공불시공)	허공을 보아도 허공이 아니지
勿拘聲色外 (불구성색외)	소리 및 밖에도 구애되지 말면
寧隨見聞中 (영추견문중)	어찌 보고 들음에 떨어지랴
湛湛秋潭月 (담담추담월)	맑고 맑은 가을 못 달
亭亭冬嶺松 (정정동령송)	꽃꽂한 겨울 고개마루 소나무
玄關道嶽碎 (현관추격쇄)	오묘한 문도 때려 부수어야
方得靈籬風 (방득영림풍)	선종을 드날릴 수 있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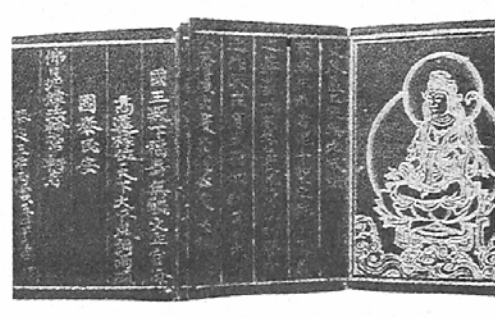
이 시는 정관대사의 시이다. 관선자(觀禪子)라는 선객에게 준 시이기에 그 이름 풀이하는 뜻이 선을 참구하는 마음가짐을 풀이한 것 같다.

여기서 말한 남대가 오대산의 남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대에 조용히 앉아 허공을 보아도 허공이 아니라 하였으니 여기서부터 보고 들음이나 소리 빛에 구애되지 않는 마음가짐의 기쁨을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달은 달이요 소나무는 어디까지나 소나무이다. 이것들이 바로 진리의 터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 이 문을 부수어야 선종을 드날릴 수가 있다. 출가와 출승가의 수선적 방편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물이 물이 아니요 산이 산이 아닌 자리에서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지리로 되돌아 온 것이다. 가을 못에 비친 달, 겨울 고개의 소나무 각기 맑고 고고하면서 바로 그대로 존재

하는 소리 빛의 실상이다. 오묘한 진리의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열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부술 수 있는 문은 더더구나 없다. 그렇지만 없다고 의식되는 이 오묘한 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부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문이 사물의 빛과 소리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 없다면, 오히려 내 마음에 있는 문일 수가 있다. 내 마음의 문이라면 내만이 열 수 있으니 주인은 바로 나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이기에 이 문은 내가 열어야 하고 그러자니 대상의 사물이 인식되는 어느 곳에도 집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집착을 여의면 문은 저절로 부수지는 것이다. 마치 저 허공을 보아도 허공이 아니듯 이, 시는 이렇듯 선미와 선기(禪機)로 가득 차 있다. (이종찬 <동국대학교 교수>)



◇ 지난달 29일 공개된 <문수최상승 무생계집>

국보급 ‘고려사경’ 일반공개

지공선사 수결 선명...1326년에 제작

지공선사의 수결이 찍혀 있는 국보급문화재인 고려 사경(寫經) 《감지금니 문수최상승무생계집(紺紙金銀泥 文殊最上乘無生戒集)》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개인소장이 여주연씨(대구 중구 계산동 63)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이 사경은 인도의 지공(指空)선사가 중국을 거쳐 고려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중 여성신도인 묘덕(妙德)에게 써준 것으로, 국보 235호인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본(紺紙金銀泥 大藏經本)》보다 14년이나 빠른 1326년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를 닦아서 최고의 경지인 깨침에 이르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불경은 가로 8.9cm, 세로 76.5cm 크기로 감물을 입힌 다펀종이를 12폭으로 만든 것으로 표지는 금가루로 되어 있고, 내용이 담겨 있는 글귀는 모두 두 가루로 쓰여 있다.

불교성순례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 순례 9일

- 출발: 5월 13일(단회)
- 동참금: 140만원
- 일정: 서울-이슬라마바드-탈라라(자울리안 불교대학 터)-스왈(붓카라, 타키타비)-타키타비-페사와르-라호르-이슬라마바드-서울

* 대한항공 특별전세기편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협찬: 대한항공

인도네시아 5일

- 출발: 4월 16일
- 동참금: 95만원

대만 5일

- 출발: 4월 21일
- 동참금: 65만원

국불교유적지 13일

- 출발: 5월 30일
- 동참금: 195만원
- 일정: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송산 소림사-경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스리랑카 6일

- 출발: 4월 21일
- 동참금: 118만원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 출발: 6월 3일
- 동참금: 188만원
- 일정: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베트남 10일

- 출발: 4월 22일
- 동참금: 230만원
- 일정: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제-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도·네팔·태국 10일

- 출발: 4월 21일
- 동참금: 150만원
- 일정: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타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롬비니-카트만두(보드님, 스와 이입부닛)-방콕(새벽사원 예배당 사진)-서울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대)

■ 여행조건 ●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 최소 출발인원: 10인 ● 전문 가이드 동행 ● 여행자 보험

한국음식 제공